

### 국민의힘 공관위, 정우택 공천 취소

“도덕성 기준 못 미쳐... 서승우 후보 우선추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또 6차 경선 결과 부산 북구에서는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경기 하남에서는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이 이겼다. 경북 구미와 경기 포천가평, 대전 중구 등은 결선 예정이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정우택 후보에 대해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서승우 후보를 우선추천하는 것으로 비대위에 재의결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서 후보는 당초 충북 청주청원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서 김수민 전 의원에 패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충북 청주상당에서 정우택 의원과 경선을 치른 윤갑근 전 검사장을 우선추천하지 않은 데 대해 “윤갑근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른 후보를 우선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력 부분에서 확실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돈 수령 여부가 확인됐냐’는 질문에 “여러 증거들을 종합할 때 우리의 도덕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해서 취소한 것”이라며 “범죄 여부와 돈 수수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밝히는 것이지 우리가 밝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정우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한 카페 사장 A씨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영상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은 돈봉투를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A씨가 정 의원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과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서예진 기자

### 대통령실-정부부처 차관 간담회

## “부담금 정비방안 신속하게 마무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 14일 윤 대통령이 지시했던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점검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최근 재정 현안과 관련해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성 실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 그간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성 실장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돼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중민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기재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與野 ‘2024 총선’ 유세 현장

## ‘낙동강 벨트’ 집결... “부산 위해 최선”

### 국민의힘

한동훈, 지방일정 나서 서병수·이성권 등 유세 지원 “부산서 새로운 정치 시작”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해 지역 총선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부산경남(PK) 지역의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를 찾았다. 낙동강 벨트는 보수세가 강한 편인 PK 지역 중에서도 더 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적지 않은 지역이다. 한 위원장의 부산 방문은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북구와 사하구 일대를 방문했다. 해당 지역은 모두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탈환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낙동강 벨트’에 속한다.

낙동강 벨트는 PK지역의 최대 격전지로 낙동강 인근의 지역인 부산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경남 김해, 경남 양산 등을 뜻한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꽤 높은 편이라, 일부 지역 현역의원은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국

민의힘은 중진인 서병수·조해진·김태호 의원을 낙동강 벨트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한 석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낙동강 벨트 일부 지역구를 탈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한 위원장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부산 북구의 구포 시장이었다. 구포시장은 부산 북구갑에 속하며, 해당 지역 현역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자, 국민의힘은 부산 내 민주당 현역 3인 중 전재수 의원을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평가하고, 5선 중진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이 지역구로 보냈다. 이날 시장 방문에도 한 위원장은 서 의원과 동행했다.

시장은 한 위원장을 환영하기 위한 이들로 가득했다. 한

위원장도 이에 셀카를 찍어주고 악수를 하는 등 화답을 했다. 이어 구포시장 상인간담회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고속철도 구축 등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안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한다”며 “저희는 부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지역 후보인 서병수 의원의 유능함을 강조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서 의원님은 실천과 속도로 유명한 분”이라며 “서 의원은 과거 부산시장이었고 서 의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절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구포시장 일정을 마친 한 위원장은 곧바로 사하구 괴정골 목시장으로 이동했다. 괴정골 목시장은 사하갑에 속하며, 이곳에서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연속 3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에선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이성권 후보가 나섰다. 이에 시장 방문에는 이성권 후보와 함께 옆 지역구인 사하을 조경태 의원도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의 자랑 조경태와 이성권을 소개하겠다”며 “저희가 부산에 정말 잘할테니 저희를 믿고 선택해 달라. 부산을 버리지 않고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대전 등 중원 공략... “반국민세력 심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 심판론 강조 R&D 예산 삭감 등 비판 “민주당 아닌 국민의 승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당 대표가 14일 오전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를 찾아 제22대 총선 대전지역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

이틀 연속 서울 동작을 찾아, 여론조사에서 고전하고 있는 당의 영입인재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한 이재명 당 대표가 14일 대전으로 내려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세종·충북 방문 일정을 잡으며 대대적인 ‘중원 공략’에 나섰다. 이해찬·김부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일제히 대전을 찾아 윤석열 정부 심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대전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덕연구

구단지가 있는 대한민국 과학의 요충지다.

이 대표는 “국가 차원의 R&D 투자는 그래서 국가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 어떻게 했다. 늘려도 부족할 판에 연구개발 예산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연구개발 예산은 줄이지 않았다”며 “마치 우리의 부모들이 보릿고개를 넘

어가면서도 자식들 교육은 시켰던 것처럼, 연구개발 투자는 계속 늘려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연구개발 삭감에 이어 여당 중진 의원의 돈 봉투 수수 의혹과 대전 서구갑에 공천받은 국민의힘 조수연 예비후보의 과거 SNS에 일제강점기 관련 내용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함량 미달 후보들을 전국에 공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내

놓은 후보들이 딱 이렇게 느껴진다. ‘어쩔래? 내가 한다면 너 어떡할래? 그냥 찍어라. 너네들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제시하면 따르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은 반국민세력인 국민의힘,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대결”이라며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반국민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토지소유자 소재확인 공고(1차)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 2항에 의거 가스배관 시설을 설치하려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관련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186-97, 186-102, 186-82  
소유주 : 이경순, 전수정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까지  
공고인 : 협성설비(주)  
연락처 : 조규준 010-9011-9304